

The Contagious Power of Testimonials

By John D. Witvliet

October 29, 2015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미식축구나 야구 경기를 처음 보게 될 때, 종종 당혹스러워하곤 한다. 북미에 사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경기에 대해 설명하면, 조금씩 경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경기의 진정한 팬이 멋진 플레이에 흥분하며 “저거 진짜 엄청났어”라고 감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경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 감탄사 -간증-은 단지 경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도록 초대하는 초청장이 된다.

근처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면, 아마 내 눈에 띄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음식을 팔고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설명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음식점을 다녀온 친구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격찬한다면, 나도 즉시 그곳에 가서 시도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친구가 애피타이저 한 입을 입에 넣고는 ‘으~~음’ 하며 맛있는 감탄사를 내뱉으면, 나는 주위가 환기가 되면서 새롭게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술 박물관을 방문하여 그림을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그 작품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영감 충만한 박물관 안내원이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그 작품에 담긴 새로운 의미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내원이 미묘한 미소로 설명을 마무리하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테일은 이 작품의 위쪽 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작품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뿐 아니라 이 작품을 즐기라고 초청받게 되는 것이다. 안내원들은 설명 속에 그들의 간증을 첨가했다. 그리고 그 작은 간증은 단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음미하라는 초청장이 된다.

스포츠에서, 음식에서,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한 많은 인간의 작업 속에서, 우리의 실천이 있는 참여는 세 가지의 보다 차별된 형태의 참여를 포함한다: 경험 그 자체, 경험에 대한 설명, 그 경험의 가치에 대한 간증.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험, 설명, 그리고 간증

경험: 예배의 행위, 기도와 찬양을 경험하는 행위, 봉독되고 설교되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간증과 헌금을 나누고 세례를 받는 것,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실천 그 자체는 대체하거나 최소화 할 수 없으며, 상당히(자주) 깊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경험에 대한 설명: 예배의 실천은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깊어진다. 설명은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왜 헌금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거나 성만찬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적은 양의 빵과 와인 혹은 주스라 할지라도 은혜 충만한 의미를 넉넉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전통적인 용어로 ‘성례 교리 교수법’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설명은 6살배기를 위한 주일학교 교실에서나 대학원 수준의 세미나 양쪽에서 모두 있을 수 있다. 이 설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성령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의 가치에 대한 간증: 이러한 경험과 설명은 간증에 의해, 그리고 “그 예배는 내게 위안을 주는 곳입니다” 혹은 “저 찬양은 내가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말들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와 같은 말들로 예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보안된다.

그들이 강요하려는 마음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간증은 더 깊은 수준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심오한 초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간증이 가진 파워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몇 해전 주일, 소그룹으로 한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설교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우리 앞에 앉아 있던 그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몸을 기대며 이렇게 속삭였다. “이 말씀이 복음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의 귀를 쫓긋 세우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든 그 코멘트, 자발적인 기쁨에 찬 그 코멘트에 우리는 경탄해 마지않았다.

뮤지션들과 예술가들은 이것에 대해 거의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합창단의 지휘자라면 한 곡을 가지고 하루 종일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지휘자가 만일 그 곡에 깊이 감동받았을 때는, 모든 합창단원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곡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을 조성한다.

이것은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로운 찬양을 접했을 때, 만일 손주들이 그 찬양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찬양에 대한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손주들도 구닥다리같이 들리는 옛날 찬송가를 무시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그 찬송가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간증과 영성 함양

격식을 차리지 않은, 열정 가득한 간증의 파워에 대한 이 간단해 보이는 논리를 상기 시켜준 것은 최근 학부모들과 교회 리더들이 모여 아이들 양육과 유년부와 청소년부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일어났다. 영성 함양을 위해 교회에서 사역적으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들이는 노력은 교회 가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와 같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나 종종 이것들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은 평상시 듣게 되는 작은 간증들이다. 목회자나 선생님이 성경 구절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며, 부모나 멘토가 어떻게 세레나 성만찬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지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 그들을 고무시킨다.

간증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마음에 새겨진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스포츠 팀, 식당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뜻 잘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 구절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야” 라든지 “이 찬양은 내 간증 같은 찬양이야”, 혹은 “내가 성만찬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까?

상냥하게 초대하는 간증

문제는 간증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감이 위협적이라는 것에 있다. 만약 우리가 회중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고 간증을 한다거나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삶 속에서 중요한 간증들은 많은 경우,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 대화 중에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문턱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간증하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강요하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초대할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해 간증할 때, 가정에서 저녁 식사 때나 교회 소그룹, 혹은 예배 위원회 중에 이러한 대화를 시도해 보라:

- 이 예배 도중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했는가?
- 오늘 읽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었거나 도전을 느끼게 했는가?
- 오늘 예배의 어떤 측면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는가?
-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의 어떤 측면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왔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는 입장이라면, 칭찬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라. 목표는 일상 대화 가운데 예배의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대화로 이끄는 변속 장치를 만드는 것에 있다.

주의: 간증은 은연중에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감한 훈련이다!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편적으로 가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의 특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레시피가 '맛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레시피를 두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두 간증은 그 저변에 있는 가치를 전달한다. 어떤 사람은 한 대학교 과정이 '쉽기 때문에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어떤 대학교 과정이 '도전이 되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치는 분명하다. 우리의 간증은 강력하게,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가 경험을 평가해 오던 그 가치들을 전달한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설교가 짧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듣고 자랐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스톱워치로 예배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밝은 음악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만 듣고 자란다면, 그들은 삶의 고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도전을 주는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 음악이나 설교가 이 동네에서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그 간증은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쉽게 팔아버리는 이유가 된다.

만약 우리가 "오프닝 찬양의 그루브가 너무 좋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의도보다는 찬양의 그루브에 더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격이 될 것이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은연중에 본질을 훼손시키는 간증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다. 따라서 "오늘 예배에서 뭐가 좋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역효과를 낳는다.

더 배워야 하는 것

이 글을 읽을 때, 일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소소한 간증들을 퍼붓는 멘토나 선생님, 친구, 혹은 친척들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글로 간증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촉구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마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표현하라는 어떠한 격려도 받지 못했다. 일상 대화에서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과연 무엇이 간증을 진짜처럼 들리게 하는지 배워야 하며, 사람들을 더 열매 맺는 쪽으로 초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역시 예배에 관한 이런 관점에 대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배우기 원한다.

출처: <http://www.reformedworship.org/blog/contagious-power-testimonials>